



한양 지물포는 명륜동 입구에 있다. 옛날 한옥이 골목 가운데 있다가 도시계획으로 점점 드러나더니 이젠 아예 길 옆으로 나왔고 말았다. 한양 지물포는 대대로 이어오는 도배지 장수와 그리고 도배일을 해오는 집안이다.

명륜동에 서울이 모두 강남이다 전원주택이다 아니면 아파트다하는 물결을 다 견디어내고 그래도 정든 동네를 못떠나고 살고있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다. 그 중에서도 한양지물포는 그걸 고집스럽게 이어온 집안에 속한다. 도배하는 일이 그리 자랑스럽지도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내 붙잡고 있는건 그 집안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모른다.

명륜동에 사는 사람들은 이 한양지물포가 왜 좋은지 다 알지만 남들이 좋다고 그 장사를 오래 계속하는 이유는 될 수 없지 않은가. 십여년이 지난 도배지 조각을 구

하러 가도 한양지물포엔 있었다. 창고 구석에 있기 때문에 하루 이들은 걸리긴해도 꼭 구해주는 집이다. 그래서 새로 도배하는 경우는 물론 다르지만 오래된 도배자로 땀질할 필요가 있을 때엔 언제든지 한양지물포에 가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장사한 것이 모여 한양지물포의 삼대째 주인인 김관수씨는 종로에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꼭 도배지를 팔고 도배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기 보다는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는 장사를 했던 덕분이다. 고리대금을 한건 아니고 적당한 이자로 은행에서 빌리기 어려운걸 쉽게 빌려주어왔다는 것뿐이다.

“이젠 도배지 장수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소? 종로에 빌딩을 가지고 있겠다 이젠 벌어놓은 돈을 좀 쓰다가 세상 떠나야 할것 아니겠소?”

동네 노인들이 김관수씨를 부추기지만 그는 그들의 말



김 이 연

- 1947. 경남 진남포 출생/1965.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 졸업/1970. 문헌 "유리벽의 첫짐"으로 월간 문학에 신인 당선
- 저서 : 장시집 "유리벽의 첫짐" "쉬운 여자" 외 다수

음 컵으로도 듣지 않는다. 지금도 도배일이 밀릴 때엔 김관수씨가 직접 도배지를 자전거에 싣고 간다.

"아버지 그 빌딩 지하 말입니다. 이발소 보다는 음식집에 빌려주는 것이 집세받기도 좋지 않습니까?"

"음식점? 그거 불이라도 나면 어쩔려고?"

"불이 왜 남니까? 그러구 요즘은 보험을 들어서 괜찮아요. 제가 교섭해볼까요?"

"안된다."

김관수씨의 아들은 영리하지 못하고 아버지 앉았던 자리 근처에도 못갈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청년이었다. 이삼년 전에 남들이 나온다는 대학까지도 나왔지만 제대로 사람구실을 할것 같지 않다. 도배지장수 삼대째에 드디어 막을 내려야하는 모양이라고 집안에선 오래전에 체념한 상태였다. 지금 아들 영호가 지하실을 음식점에게 빌려주자고 제안하는 것도 아마 술집여자에게 녹아서 그런 안을 내놓는게 틀림없다.

"아주 착실한 여자가 있는데 어쩌면 나하고 결혼할 여자가 될지도 모르는데요."

"겨우 얻어온 여자가 술집에서 만난 여자야?"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사람만 똑똑하면 되었지."

"똑똑한 여자가 술집에 있어?"

"집안 사정이 안좋아서 그럴수도 있죠. 그럼 나는 뭘니까? 도배쟁이 삼대의 아들이잖아요?"

"그래 그래 불명예스럽단 말이나?"

"꼭 그런걸 아니지만 좀 쪽팔리는건 사실이죠."

영호의 말이 하도 순수해서 그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싶었다. 사실 도배쟁이를 아직도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인밖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영호가 애기하듯대로 명예로운 집안은 못되는게 사실이다. 그러기에 아들이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고 싶었지만 박복한 탓인지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때

로는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것 같지만 때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버리곤 해서 절망을 느끼게 하는 적이 많다.

빌딩을 지을때엔 아들 대엔 이 도배일을 종할 생각이었지만 영호가 신통치 않아서 그저 들어오는 십세나 반아서 굶어죽지 않고 제 생활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할 지경이다. 타인에게 속아서 이 빌딩을 다 빼앗기는 경우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려면 머느리라도 똑똑한 여자가 들어와야 할텐데 영호가 좃어오는 여자는 모두 모자라거나 지나친 여자들이었다. 그럴때 마다 등골에서 식은땀이 흐르는걸 김관수씨는 느낀다. 그것도 영호가 눈치채지 않을 정도로 따돌려야지 엇가기라도 하면 걸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호는 하구한날 술을 마신다. 운전수를 끌고 다니면서 밤새도록 마셨다. 그것도 혼자서 먹는데 아니라 술친구가 있다. 고급 싸움에서부터 포장마차까지 거처야 하루의 사업이 끝나는 것이다. 영호는 술을 마시면 아주 판사람이 된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주먹도 세진다. 그래서 술기운에 함께 갔던 친구하고 싸움을 벌일 때가 많다. 싸움판에서야 누가 술을 샀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버릇없는 영호는 언제나 두드러 맞는 쪽이다. 양복을 찢기고 안경을 깨뜨리는건 보통이다.

이런 일이 거듭되는 동안 영호는 술을 함께 마시줄 친구조차 하나 둘 잃어가고 영호는 아주 고독한 사나이가 된다. 이빨도 부러지고 이젠 남은 이가 몇개 없는 정도다. 그래서 영호는 치과엘 찾아가다.

"어쩌다가 이런 싸움을 하십니까? 지금 선생님의 나이가 몇이신줄 아십니까?"

"알죠. 서른 하합니다."

"서른 한살 되는 나이까지 몸 애끼지 않고 치고 받고 하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 선생님 치과 손님이 한사람 더 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길 말고 싸움을 잘하는 운전수를 채용하시면 어떻습니까? 여차하면 싸움을 도맡아서 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디가드를 고용하시란 말씀입니다. 치과에 오시는 돈보다 적게 들겁니다."

"참 좋으신 아이디어입니다만 어떻게 사나이로 태어나서 싸움판을 벌여 놓고 줄행랑을 놓는단 말인가요?"

"줄행랑까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옆에서 관전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지요."

역시 머리있는 사람들은 현명하게 산다는 생각을 하며 치과를 나왔다. 어금니조차 턱을 세게 두드려맞은 날 빠져버려서 완전히 틀니로 끼워야한다고 한다. 아직도 도배지를 자전거에 싣고 일을 다니는 칠순의 아버지. 김관수씨보다도 이가 없다는건 우스운 일이다. 보다보다 이런 아들을 만들었다는걸 누구한테 원망할까. 뭐니뭐니해도 내 탓이로다. 그렇다고 조금도 미안하단 생각을 하지 않는 영호에게 죄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으니 욕을 하면 무엇하나.

어쨌든 요즘은 영호와 대화라도 되니까 다행이다. 그런 대화라도 있으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가 빠졌는지도 알 수 있지않나. 이런 자식이라도 있었으니 대를 이을 수 있었지 않나하고 고맙게 여긴다.

이날 이때까지 도배일을 하고 살아온 김관수씨의 사는 방법이었고 영호와와는 아무 상관 없는 것이다. 영호를 위해서 도배일을 해온게 아니다. 그 일로 기쁨을 찾을 수 있었고, 또 그일 밖에는 다른 욕심 없이 살았어도 남길 만큼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건 그건 영호의 복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다.

김관수씨의 아버지도 똑같은 일을 했어도 빌딩을 아들에게 남겨주지 않았다. 김관수씨의 복이 있었다면 빌딩을 물려받았을테지만.

영호는 아버지의 허락없이도 빌딩 지하를 술집으로 전환시켰다. 집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건 구실이고 영호는 여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 분명했다. 그러곤 그 집에 묻혀서 술을 마신다. 술값으로 집세를 때우곤 다음달엔 아무 걱정없이 술을 마실 수 있다. 한양지 물포는 명륜동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였고 그것은 김관수씨네 삼대를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명륜동에서 자라난 모든 사람들에게 기념비적인 점포였다.

김관수씨가 이런 아들을 두고도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감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김관수씨는 어느날 영호가 서울을 비운 사이에 종로의 빌딩에 들려보았다. 그건 지하에서 장사를 한다는 여자를 만나보기 위해서였다. 김관수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술집에 들어서는 셈이다.

“뭘 드시겠어요?”

“아가씨가 춘회라는 아가씨인가?”

“아니요. 마담 언니요?”

“그 마담 언니를 만나러 왔다고 전해주겠소?”

한참만에 마담 언니가 자리에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으며 상냥하게 인사한다.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춘회인데요. 저희집엔 처음 이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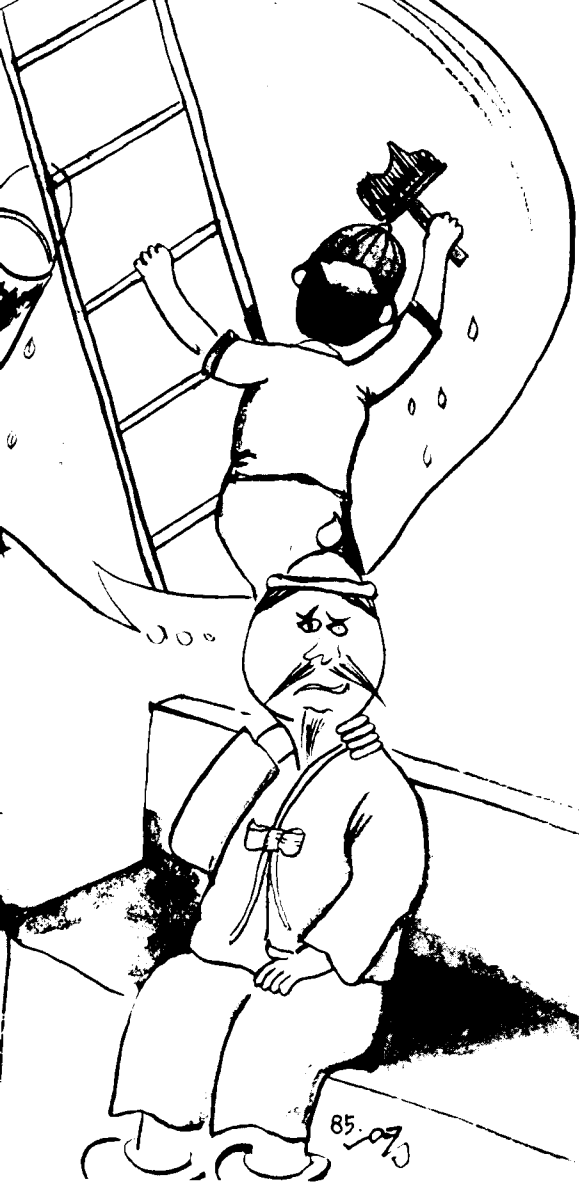
“음, 이집엔 무슨 술이 있소?”

“소주만 없고 무슨 술이든지 다 있어요. 아저씨는 별 좋아하세요?”

“나? 나는 소주밖에 안마시고 살아온 사람인데 오늘은 다른 술을 좀 마셔볼까?”

“그럼 소주 비슷한 술로 하실래요? 진토닉이랑게 있는데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꽤 친절한 아가씨였지만 김관수씨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어떤 여자이든 영호에게 짝을 지어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춘회를 만나보는 것이지만 이 아가씨는 아니란 생각을 아까부터 하고 있었다. 아무리 영호가 좋아하고 영호가 제너름대로 제대로



된 여자를 고르지 못할 형편이지만 이런 여자를 골라야 하나 하는 생각에 미치자 슬퍼졌다.

“아가씨도 한잔하고 나도 그걸로 한잔 가져오지.”

춘희는 빠른 동작으로 안주까지 날라왔다.

“아저씨는 나이가 많으신것 같은데 내가 만나본 아저씨 중에서 가장 푹푹하신것 같네요.”

“그래? 사람을 볼줄 아는구만.”

김관수는 자기를 올려주었대서가 아니라 그만큼 안목이 있다는데는 다소 안심이다. 어떻게 기회를 잡아서 영호에 대한 얘기를 물어볼까.

“자네는 결혼한 여자인가 아니면 독신인가 아니면 아직 처녀인가.”

“어떤것 같아요?”

“글쎄……”

“술집에서 일할 때는요 유부녀라고 하고요, 혼자 있을 때는 독신이라는게 맞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엔 처녀라고 하죠.”

“그럼 나하고 있을때엔 뭐라고 하지?”

“그야 물론 유부녀죠.”

“그래? 남편은 어디있지?”

“어딘가 있죠.”

“내가 중매할까?”

“괜찮아요.”

“어떤 사람을 찾나?”

“유부녀한테 무슨 중매를 하신다는거죠?”

김관수씨는 영호가 고른 여자가 비록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이긴 했지만 보통 여자와는 달랐다. 끝내 김관수씨는 그 여자에게 농담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쩌면 빌딩을 이어받을만한 똑똑한 며느리는 그런 여자라야 한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영호가 돌아왔다. 춘희를 만난 얘기부터 할까 했지만 영호의 입에서 나오도록 기다리는 편이 자연스러울것 같았다. 영호는 새로 끼워 넣은 틀니가 자꾸만 거북한지 입안서 달그락거렸다.

“에이 인식아, 그 틀니를 가만히 제자리에 두고 있이라. 나 틀니를 끼웠소 하고 광고를 하는거냐?”

히히, 영호는 어깨를 움츠리며 웃었다. 어찌하리.

김관수씨는 후욱 한숨을 쉬었다. 춘희란 여자는 지나치게 똑똑하고 영호는 많이 부족하였다. 두사람이 합해서 둘로 나눈다면 적당한 인간들이 될까?

“그래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야?”

“속상해서 여행을 다녀왔어요.”

“왜?”

“그여자가 정말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것이었어요.”

“유부녀? 누가?”

춘희를 두고 말하는줄 알지만 김관수씨는 시침을 뚝뚝했다. 그렇게보니 아까운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리가 있나? 한번 테리고 오너라. 내가 한번 물어보자꾸나.”

“그보다도 이 틀니 때문에 싫다는 겁니다. 유부녀란 괜한 소리이구요.”

“난 모르겠단. 자신있는건 며느리 고르는 일도 아니요 아들을 잘 키우는 것도 아니야 다만 도배지를 울지 않게 잘 바르는데일 뿐이란걸 알았거든. 영호야 애비하고 도배지나 고르러 창고에 내려가자 응”

지하 창고로 내려가면서 영호의 눈에도 김관수씨의 눈에도 눈물이 어른거렸다.